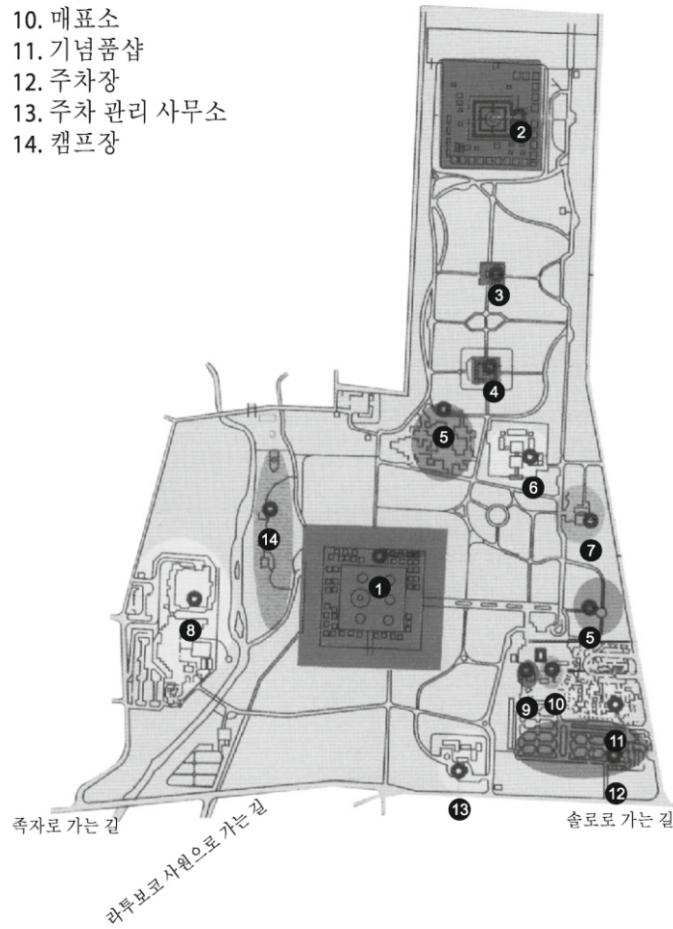




지도

1. 프람바난 사원
2. 세우 사원
3. 부브라 사원
4. 룸봉 사원
5. 놀이터
6. 고고학 및 시청각 박물관
7. 식당
8. 라마야나 오픈 무대
9. 안내소
10. 매표소
11. 기념품샵
12. 주차장
13. 주차 관리 사무소
14. 캠프장



PT. TAMAN WISATA CANDI
BOROBUDUR, PRAMBANAN & RATU BOKO (PERSERO)
Jl. Raya Yogyakarta - Solo Km 16, Prambanan,
Yogyakarta 55571 - INDONESIA
Tel. +62 274 496 402, Fax. +62 274 496 404
corporate@borobudurpark.co.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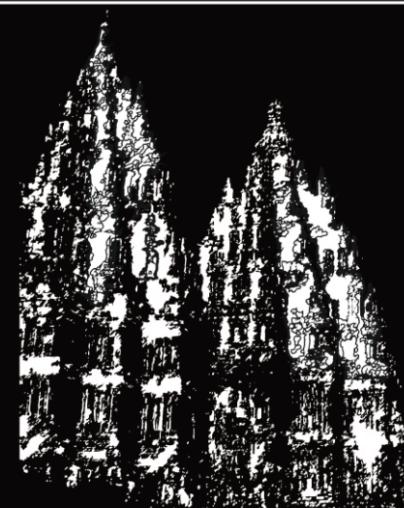
프람바난 사무실
Tel. +62 274 496 401 / 496 405
콜 센터 : (024) 8646 2345
SMS 센터
0815 0100 0900

**World Heritage**
BOROBUDUR PARK

www.borobudurpark.co.id



프람바난













프람바난 사원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힌두사원이며, 1991년 UNESCO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번호 제 642 호 '프람바난 사원군'으로 정식 등재되었다. 본 사원군은 프람바난 사원과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세우사원으로 구성되었다. 이 외, 프람바난 사원 관광공원 내에는 2개의 불교 사원 즉, 룸봉 사원과 부브라 사원이 위치하고 있다.

역사

프람바난 사원은 약 AD 9세기에 건립되었고, AD 856년 고대 마타람 왕, 라카이 피카딴에 의해 공식화되었다. 이 신성한 건축물은 시바신을 위해 공헌되었고, 이 때 '시와그라(시바신의 성전)'라는 명칭을 갖게 된다. 이 사원은 3개의 광장으로 나뉘며 제Ⅰ 광장은 중앙부분에 위치하며 16개의 사원이 있으며, 제Ⅱ 광장에는 224개 사원, 그리고 제Ⅲ 광장에는 발견 된 어떤 사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프람바난 사원 군에는 총 240개의 사원이 있다.

제Ⅰ 광장에는 16개의 사원이 있으며, 3개의 주요 사원 즉, 브라마 사원, 시바사원, 그리고 비슈누 사원으로 구성되었고, 3개의 와하나 사원(3대 신이 태고 다닌 3마리 동물), 4개의 끌리르 사원, 2개의 아랫사원, 그리고 4개의 빠똑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힌두교 최고의 신 시바의 위상은 시바 사원의 규모로 비추어 볼 수 있다. 시바 사원의 규모는 가장 크고 가장 높으며 (47.6m), 브라마 사원과 비슈누 사원은 각각 높이가 33m에 이른다. 시바 사원 내부에 4개의 법당이 있다. 동쪽 방향의 법당에는 시바상, 북쪽 방향의 법당에는 두르가 마히사수르아마르디니 상, 서쪽 방향의 법당에는 가네샤 상, 그리고 남쪽 방향의 법당에는 아가스타야 상이 위치하고 있다. 브라마 사원과 비슈누 사원은 1개의 법당만이 있으며 내부에 각각 브라마상과 비슈누상이 있다.

제Ⅰ 광장에 있는 사원들의 장식들은 매우 화려하다. 가장 독특한 장식은 한 마리의 사자가 '끼나라-끼나리'라는 2개의 천국의 생명체가 2개의 깔파타루(생명의 나무)를 각각의 오른쪽과 왼쪽 아래에서 그 나무 사이에 끼워진 부조이다. '끼나라-끼나리'는 종종 2명의 도인 또는 다른 동물들과 교체된다. 이 장식물은 프람바난 사원에서만 볼 수 있으며 이를 "프람바난 문양"이라고도 일컫는다. 시바 사원과 브라마 사원의 울타리 난간의 측면에는 라마야나 서사시의 아름다움이 장식되어 있고, 비슈누 사원에는 크레스나야나 서사시가 장식되어 있다.

제Ⅱ 광장에는 224개의 빠르와라 사원이 있으며, 높이는 약 14m에 이르고 4열로 배열되어 있다. 많은 부분이 분실되어 현재 117개만 존재하고 있다. 대부분의 빠르와라 사원은 여전히 붕괴상태이나 2개의 사원은 이미 새로 단장한 상태이다. 제Ⅱ 광장에 있는 모든 사원은 네 방향으로 향하고 있으며, 제Ⅰ 광장의 뒤에 위치한다.

라마야나 부조

제Ⅰ 광장에 있는 3개의 주요 사원의 벽에 새겨진 부조물들은 힌두교의 윤리적 가치와 용맹성, 비극, 불행, 그리고 사랑을 담은 영웅적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 시바 사원과 브라마 사원의 난간에 있는 라마야나 이야기는 웅장한 규모의 발레공연으로 오픈 무대에서 밤에 재 탄생된다. 이 대 서사시는 약 250명의 전문 무용수가 프람바난 사원을 배경으로 놀랄만한 무대를 펼친다. 오픈 무대는 프람바난 사원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로로 종그랑 전설

이 전설은 빠르와루 보코의 딸인 매우 아름다운 로로 종그랑의 여인과 결혼을 원했던 반동 본도오소라는 청년의 이야기다. 이 여인은 정중히 거절하기 위해 하루 만에 1,000개의 사원을 지으라는 요청을 제안한다. 반동은 이를 착수하고 신에게 부탁하여 도와 줄 신들의 무리를 배치한다. 아침에 밝자 반동이 작업을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보게 된 로로 종그랑은 모든 여성들을 깨워 요란하게 절구통을 치도록 하고, 밀짚단을 태워 새벽이 온 것처럼 하였다. 이는 모든 신들을 놀라게 하여 그들이 1,000개 째의 동상을 마무리 못하고 하던 일들을 놓고 달아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로로 종그랑의 계략을 알게 된 반동은 노여움에 토로 종그랑이 석상이 되도록 저주를 하여 모든 신들이 마무리를 못한 1,000개째의 동상이 되어 이 일을 마무리한다. 결국 로로 종그랑은 여자 석상이 되어 토로 종그랑 동상이라 불려지게 되었다. 사실상 이 동상은 시바 신의 부인인 '두르가 마히사수르아마르디니'이며 시바 사원 북쪽 법당에 놓여있다. 이러한 전설로 인해 프람바난 사원은 토로 종그랑 사원으로도 유명하다.

세우 사원

이 사원은 프람바난 사원 북쪽에서 약 500m 지점에 소재한다. 세우 사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고대비문들은 AD 782년에 출발한 꺼루락 비문과 AD 792년의 만주스리그르하 비문이다. 룸봉 사원군 근교에서 발견된 꺼루락 비문에는 3인의 숭배자에게 존경하는 절차뿐 아니라 만주스리 동상을 세우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만주스리그르하 비문에는 AD 792년의 와즈라사나 만주스리그르하라는 이름의 불교성전 건축에 관한 몇 가지 완성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두 개의 비문은, 불교가 세우 사원 건축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는 것 또한 밝혔고 이 사원은 기술적 측면 및 상징적 측면과 관련된 건축 발전을 경험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몇몇 건축 전문가들에 따르면, 세우 사원군은 고대 마타람 왕국에서 가장 오랜 기간 즉, 38년간 재위했던 라카이 빠낭카란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한다.

세우사원군은 249개의 건축물이 배열되었으며 1개의 주요 사원과 8개의 아랫 사원과 240개의 빠르와라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웅전은 제Ⅰ 광장에 위치하고, 20도 각도의 십자형을 이루고 있으며, 1개의 주요 법당이 있고, 4개의 전시 법당이 있으며 정문은 동쪽에 있다. 빠르와라 사원과 아랫사원은 제Ⅱ 광장에 있다. 빠르와라 사원군은 동심형의 직사각형 모양을 하여 4줄로 배열되어 있다. 제Ⅱ 광장 입구에 4개의 코너에 위치하는 8개의 드와라빨라(사천왕)은 각각 2개의 동상이 서로 마주 보고 있다. 이 동상들은 하나의 거대한 돌로 만들어진 웅장한 크기이다.

프람바난 사원과 세우 사원 사이에서 룸봉 사원과 부브라 사원을 볼 수 있다. 이 두 사원은 불교를 배경으로 한다. 룸봉 사원은 1개의 주요 사원과 16개의 빠르와라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빠르와라 사원들은 주요 사원을 중심으로 사각형으로 그 주변에 배열되어 있다. 주요 사원은 20도 각도의 십자형을 이루며 네 개의 측면에 전시법당을 두고 있다. 부브라 사원은 18.5 평방미터의 정사각형에 위치하며 동쪽으로 향해 있다. 이 불교 사원들의 존재는 세우 사원군

